

인턴 결과 보고서

2014학년도 2학기 파견자 강○○

CNN 인턴십은 산학연계 프로그램이기에 인턴생활과 학교생활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CNN에서의 인턴 경험은 ‘나 자신’에 대해 깊이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우며 무엇이 부족한 사람인가’에 대해, 그리고 ‘내가 가진 가능성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해 하루하루 자신에 대해서 깨달아 가는 것이 많은 한 학기였습니다. CNN 인턴을 할 당시 저는 학교에서 연세춘추 기자로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이라는 틀 안에서 TV와 신문이라는 두 매체를 오가며 생활하는 것은 어쩌면 앞으로는 경험하기 힘들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방송과 신문매체의 특성뿐만 아니라 방송기자와 신문기자 각각이 갖춰야 할 자질은 무엇인지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기 전에 ‘내가 꿈꾸던 언론이란 곳은 실제로 어떤 곳인지 직접 경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에 지원했던 CNN 인턴십 덕분에 저는 조금 더 진지하고 구체적인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방송기자라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2014 여름학기 파견자 김○○

저는 주로 국내소식 모니터를 담당했고, 취재에 필요한 통번역 작업을 돕기도 했습니다. 특히 유병언 사체가 발견됐을 때와 열차추돌사고 당시엔 특파원들이 말레이시아 여객기 사고, 이스라엘 가자지구 폭격 등의 사건으로 모두 해외 출장을 간 상태라 사무실에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지국이 있는 홍콩지사에 국내소식을 전달하고 추가 취재를 하는 기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 남은 시간엔 1분 이내 짧은 피쳐 기사 소재가 될 만한 탈북자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유병언 사체 보도와 열차추돌 사고에 대해 추가 취재를 하며 언론인의 자세를 제대로 배워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CNN에서의 인턴 경험은 한국언론 환경과 비교를 하기에 중요한 잣대를 제공해주었습니다. 정확성을 생명으로 해야 할 기사에 국내 언론에선 오보가 많이 생산되고 있었고, 그것은 국내 시청자, 독자 뿐 아니라 한국 뉴스를 접할 외국 언론, 외국 시청자, 독자들에게도 큰 타격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확성과 공정성이 언론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자질인지, 느린 신뢰를 쌓아나가며 취재원과 관계를 맺고 윤리적 보도를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총체적으로 배워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2014학년도 1학기 파견자 김○○

저는 주로 local & North Korean news monitoring, 인터뷰 등 통번역, 취재 현장 지원(세월호, 오바마 방한 등), 생방송 보조(fact 체크 및 업데이트, 카메라 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본인의 인턴십 기간에 큰 사건들이 많이 터져 힘들기도 했지만 아주 큰 경험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사무실 직원 분들 모두 인턴을 따뜻하고 인간적으로 대해주셨고, 잡무보다는 최대한 하나라도 배워갈 수 있는 업무를 주려고 노력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어 실력 향상은 덤입니다.

2013학년도 2학기 파견자 김○○

저는 매일 헤드라인 팔로업 및 정리, 뉴스 소스 크로스체킹, 북한 뉴스 번역, 영상 더빙 입력, 개성공단 재개 촬영, 필리핀 대통령 인터뷰 촬영, 미국 부대통령 연설 취재, 6.25 참전 용사 인터뷰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인턴십 활동을 하면서 촬영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오피스 사람들과 거의 항상 붙어 있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에서도 많은 것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맨이 점심시간에도 사람들을 살피면서 흥미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어떤 순간에 어떤 카메라 프레임을 적용해볼지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리한 관찰'이야말로 저널리스트가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는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송기자를 통해서 뉴스의 중심에는 바로 '사람'이 있다는 것을 크게 배웠습니다. CNN에서 인턴 활동을 하다보면 북한 관련 이슈를 다룰 때가 많은데, 여기서 제가 간과하고 있었던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모든 사람에게 항상 예의바르면서도 동시에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준 피디님으로부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사를 쓸 때 관련된 사건들을 몇 개 리서치해서 바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철저하게 조사하고 공부하면서 준비하시는 것을 보고 자극도 많이 받았습니다. 학기 중에 수업과 병행하느라 가끔 힘들 때도 있었지만, 학부 마지막 학기를 신촌과 광화문을 오가면서 너무나도 뜻 깊고 보람차게 보낼 수 있었던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2013학년도 여름학기 파견자 손○○

저는 두 가지 이유에서 본 프로그램을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첫째, 외국 언론사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CNN을 비롯한 외신은 구조나 문화가 국내 언론사와는 매우 다릅니다. 그러나 외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외신에 취직하기를 원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외신에 대해 막연한 이미지만 갖고 있고, 구체적으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신에 관심있는 학생이라면 본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를 결정하고 구체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외신에 굳이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라도,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언론인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소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CNN에서 만난 기자분들은 영향력 있는 매체에서 일하는 만큼 강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특히 보도의 신속성보다 정확성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며 기자로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외신은 전 세계적으로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지만, 각 지사는 소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내 언론사에 비해 인턴십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에 인턴십 경험과 함께 전공학점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과 학생이라면 꼭 외신 기사를 꿈꾸지 않더라도 한번쯤은 용기 내어 지원해보기를 바랍니다.